

# “경찰 ‘발바리 신고’ 묵살했다”

〈연쇄 성폭행범〉

## 피해여성 “신고 조사 안해 2차 피해” 주장...경찰청 감찰키로

### 광주 동부경찰 30대 성폭행범 검거

광주지역 연쇄 성폭행범 ‘발바리’의 피해 신고를 경찰이 묵살하는 바람에 피해가 더욱 컸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경찰서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만간 감찰에 착수할 방침이다.

광주 동부경찰은 22일 광주지역 원룸과 자취방 등을 돌며 여성 16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발바리’ 박모(35·광주시 북구 우산동)씨를 특수 강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박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 H(36·북구 운암동)씨가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1년이 넘도록 경찰 조사는 없었고 또다시 2차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H씨에 따르면 지난해 6월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자신의 집에서 박씨에게 성폭행당한 후 곧바로 ‘112 지령실’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에는 H씨의 신고 기록 또는 조사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동부경찰도 이날 박씨의 소행으로 보이는 10건(북부경찰 관내)의

성폭행 사건 관련 기록을 북부경찰로 부터 넘겨받았지만, 피해자 가운데 H씨 관련 기록은 없었다.

H씨는 지난 6일에도 박씨에게 2차 질도 피해를 입었다. H씨는 당시 다행히 집을 비워 번을 당하지 않았지만, 외화를 도둑맞았다.

경찰 조사결과 H씨의 신고가 묵살된 지난해 6월 이후에만 박씨에게 성폭행당한 여성이 8명에 이른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신고 묵살이 성폭행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박씨가 범행에 성공한 피해 여성의 집은 또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볼 때 경찰의 신속한 수사가 이뤄졌다면 박씨를 조기에

검거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비난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박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다음주께 H씨 주장에 대해 감찰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경찰 실무로 신고가 누락됐거나 신고 후 H씨가 착각하거나 진술을 거부·신고서를 취소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 10월 현재 광주지역에서는 94건의 성폭행 범죄가 발생했고, 경찰은 박씨 이외에도 중·고등학생을 집중적으로 노려온 ‘50대 발바리’ 등 최소 3명의 ‘발바리’가 여전히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발바리 때문에 붙잡힌 ‘발바리’

#### 애완견 짝자 도주 ‘덜미’

연쇄 성폭행범 ‘발바리’는 아이러니하게도 피해 여성의 발바리 애완견 때문에 붙잡혔다.

박씨는 지난 16일 새벽 6시께 광주시 동구 김모(여·24)씨 자취방에 들어가 성폭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김씨의 애완견이 미친 듯 짖어대며 달려들자 이웃들이 깡뚝을 우려, 집에서 도망쳤다.

박씨는 긴박한 상황에서 인근 골목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있다가 지나가던 여성들이 신고하

는 바람에 경범죄 위반(공역음란) 혐의로 동부경찰에 끌려왔다.

이날 오전 9시께, 정신을 차린 김씨가 성폭행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박씨는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 대기실에 앉아 있던 상태. 경찰은 김씨가 말한 ▲성폭행 용의자와 박씨의 인상착의가 동일하고 ▲비슷한 시각에 사건 현장 인근에 있었던 점을 수상하게 여겨 DNA 감식을 실시, 범행을 밝혀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오락실 비호’ 경찰 3명 영장

광주지방경찰청 형사2부는 22일 친·인척이 업주로 있는 사행성 오락실 불법영업업 목인·비호하고 업소 단속 과정에서 압수물을 누락한 광주서부경찰서 N지구대 김모(51) 경사와 K지구대 이모(35) 경장, 또 다른 김모(38·생활안전과) 경사 등 3명에 대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N지구대 김 경사는 지난 5월께부터 처남 박모(46)씨 등이 공동으로 운영 중인 서구 금호동 H오락실의 불법영업 사실을 목인하

고, 이를 적발한 K지구대 이 경장에게 사건 축소를 청탁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 경장과 또 다른 김 경사는 업소 단속과정에서 현금 180만원과 10여 대의 게임기를 현장에서 압수하지 않고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본서에 근무 중 뒤늦게 출동한 생활안전과 김 경사는 “청탁을 받고 단속을 무마해 준 사실도 없을 뿐더러 고의로 누락시킨 압수품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현주기자 ahj@kwangju.co.kr



폭설대비 모의훈련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고속도로 순찰대·소방서 등 광주·전남 7개 유관기관은 22일 오후 호남고속도로 장성 ‘호남터널’ 앞에서 폭설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도로공사 등은 내년 3월15일까지를 ‘자연재난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접치재’(순천시 주암면) ‘대덕터널’(담양군 대덕면) 등 10개 취약 구간에 영화촬영용 액션 살포장치와 노면 센서를 설치하는 등 겨울철 제설대책에 돌입했다.

/정성=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 대포차 판매·주행거리 조작 업자 등 13명 적발...2명 영장

#### 광주지방경찰청

중고차를 사들인 뒤 속칭 ‘대포차’로 판매한 중고차 업자와 자동차 주행거리 계기판을 조작한 업자 등 1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합평 N중고차 매매상사 대표 박모(32)씨와 자동차 주행거리 조작업자 국모(36)씨 등 2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N중고차 바지사장 정모(34)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자동차 주행거리 조작을 의뢰하고 대포차를 구매하러 온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월부터 합평군 월야면에 중고차 매매상사를 차려놓고 중고차 498대를 완강에 매입해 명의를 이전한 뒤 ‘대포차’로 판매하거나, 대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채남·탈세 차량 소유주에게 명의를 빌려줘 2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대포차 구매자들 중 일부는 1500cc 이상 차량을 구매

했을 경우 영세민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중형급 ‘대포차’를 구매하거나, 자신의 차량을 중고차 매매상사 명의로 등록해 타고다니는 영세민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동차 매매업자 1명이 300여 대의 차량을 소유하며 교통범죄금 5천만원이 체납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중고차 매매상사들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미터기를 조작한 국씨는 광주와 전주시의 중고 자동차 매매상들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직접 제작한 미터기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 주행거리를 낮춰주고 대당 6만~8만원을 받는 등 300여 대 차량의 주행거리를 조작해 2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자동차 판매업사원이었던 국씨는 미터기 계기판의 디지털 칩의 암호를 푸는 프로그램을 개발, 노트북에 설치한 후 미터기 조작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면세유 탈세 판매 조직 7명 검거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22일 면세유를 탈색(脫色)한 후 불법유통한 조모(46·대전시)씨 등 7명을 검거하고 달아난 총액 유모(여·42)씨를 쫓고 있다.

서해청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9월부터 폐교된 전북 김제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을 임대해 후 지하에 2만ℓ를 저장할 수 있는 탱크 및 탈색 시설을 설치하고, 어민들로부터 면세유를 수집해 주유소 등에 팔아온 혐의다.

이들이 시중에 불법유통한 휘발유는 8만8천800ℓ로 시가 1억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 등은 활성탄가루에 숨을 넣는 신중 수법을 이용, 면세유 착색제(着色劑)를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유의 경우 ▲휘발유는 검은색 ▲경유는 청록색을 띠고 있다.

서해청은 이 같은 행위가 서해안 일대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자동차 판매업사원이었던 국씨는 미터기 계기판의 디지털 칩의 암호를 푸는 프로그램을 개발, 노트북에 설치한 후 미터기 조작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진도서 어선 가스 폭발

#### 1명 사망·2명 중화상

지난 21일 오후 8시25분께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에 정박 중이던 목포선적 75t급 안강망 어선 ‘777 명성호’ 선미 갑판 식당에서 LP 가스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선원 박모(56·목포시 서산동)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선장

김모(48·〃 산정동)·기관장 김모(51·〃 중동)씨 등 2명이 전신에 중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를 목격한 선원 김모(43)씨는 “조기를 잡기 위해 출항 준비를 하던 중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나자 선원 5명은 다른 선박으로 피했으나, 선장 등은 갑판을 확인하다 번을 당했다”고 말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 나원침 (7365) 김종두



다들 물어봐 신발재 KCC  
DS건설(주) KCC건설, 연세대학교, 현대  
KCC향교, 시스텔향교 생안·시원  
▶ 02-002-14-3001 ▶ 02-002-14-3002

(주)본드나리 KCC건설은  
실리콘·방수제·점착제·타이브  
▶ 02-002-14-3001 ▶ 02-002-14-3002

승려가 찜질방서 20대 男 성추행  
○광주 북부경찰은 22일 찜질방에서 20대 남성을 성추행한 경남 B사 승려 이모(45)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이날 오전 6시께 광주시 북구 H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자던 노모(24)씨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특정부위를 서너 차례 만졌다는 것.

○승복 차림의 이씨 등은 노씨의 몸을 서로 번갈아가면서 더듬다가 잠에서 깬 노씨의 신고로 붙잡혔는데, 이씨는 경찰에서 “상대방이 혼자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동성애자인 줄 알고 못된 짓을 하게 됐다”고 진술.

○담당 경찰은 “승려 이씨는 과거에도 사우나와 찜질방에서 강제추행을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수차례 끌려온 적이 있는 동성애자”라고 진언.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경석현 유럽명품갤러리** OPEN기념 특가세일

이제는 전통 명품기구를 광복골남포로 옮겼습니다.

다들 물어봐 신발재 KCC  
DS건설(주) KCC건설, 연세대학교, 현대  
KCC향교, 시스텔향교 생안·시원  
▶ 02-002-14-3001 ▶ 02-002-14-3002

(주)본드나리 KCC건설은  
실리콘·방수제·점착제·타이브  
▶ 02-002-14-3001 ▶ 02-002-14-3002

승려가 찜질방서 20대 男 성추행  
○광주 북부경찰은 22일 찜질방에서 20대 남성을 성추행한 경남 B사 승려 이모(45)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이날 오전 6시께 광주시 북구 H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자던 노모(24)씨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특정부위를 서너 차례 만졌다는 것.

○승복 차림의 이씨 등은 노씨의 몸을 서로 번갈아가면서 더듬다가 잠에서 깬 노씨의 신고로 붙잡혔는데, 이씨는 경찰에서 “상대방이 혼자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동성애자인 줄 알고 못된 짓을 하게 됐다”고 진술.

○담당 경찰은 “승려 이씨는 과거에도 사우나와 찜질방에서 강제추행을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수차례 끌려온 적이 있는 동성애자”라고 진언.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경석현 유럽명품갤러리 (062) 515-8045